

일제 강점기 개성지역의 근대 풍경 연구

— 『高麗時報』의 10인발행동인을 중심으로*

김희주**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高麗時報』의 10인 발행동인들의 글들을 통해 당대 개성지역의 근대풍경을 고구하는 데 있다. 『高麗時報』는 1933년 4월16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일제의 언론 통제법 정책에 의해 1941년까지 4월 16일 폐간된 신문으로 일제 강점기 한인들이 발행한 유일한 한국의 지역신문이었다.

『高麗時報』는 투고 규정이 '개성'에 국한될 만큼 지역성이 강한 신문이다. 「正月中 開城畵俗(개성의 이상한 풍속)」과 같은 '개성지역' 고유의 문화양상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지역 역사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특히, 창·폐간의 역사를 함께 한 10인 동인들의 다양한 장르의 글들은 문인들의 내밀한 감회나, 문학적 교유, 시대 인식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 연구 가치가 크다. '개성' 특유의 지역성과 '근대'를 전면에 내세운 『高麗時報』는 매체나 정보지라는 신문 본연의 역할보다는 문예지로서 기능했다.

창간 발행 동인 10인은 거화(炬火) 공진항(孔鎭恒), 청농(靑農) 김학형(金鶴炯), 범사초(凡斯超) 김재은(金在殷), 포영(抱永) 고한승(高漢承), 하성(霞城) 이선근(李瑄根), 송은(松隱) 김영의(金永義), 일봉(一峯) 박일봉(朴一奉), 김귀(金龜) 김병히(金秉河), 마공(馬公) 마태영(馬泰榮), 춘파(春波) 박재청(朴在淸) 등이다.

10인 발행 동인들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정보와 평론을 제공함으로써 개성 시민들의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켜 신문 독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켰다. 이는 『高麗時報』가 지닌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일 것이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50478)

** 국립공주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주제어: 개성지역, 근대, 일제 강점기, 발행 동인, 공진항, 김학허, 김재은, 고한승, 이선근, 김영의, 박일봉, 김병하, 마태영, 박재청

목차

1. 서론
2. 10인 발행 동인들의 의미
3. 일제 강점기 개성지역의 근대 풍경의 특성
4. 결론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지역신문이었던 『高麗時報』(1933~1941)의 10인발행 동인의 글을 중심으로 당대 개성지역의 근대풍경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개성지역 문인들의 지향과, 연구되지 않은 문인들의 존재를 규명하고, 지역주의적 특성과 함께 지역신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구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1909년 신문지법에 의해 정부는 새로운 민간지 몇 개를 허가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근대 초기의 『慶南日報』였다. 이때 등장한 신문들은 서울의 『大韓民報』·『大同日報』·『時事新聞』 등이다. 『慶南日報』가 식민지 초기를 견뎌 지역신문이었다면, 『高麗時報』는 일제 강점기를 버틴 지역신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한인에 의해 발행된 유일한 지역신문이며 그 외에는 일본인에 의해 발행된 일어로 된 지역신문¹⁾뿐이다. 日인에 의해

1) 日인이 발행한 지역신문은 『조선신문』(경기인천), 『삼남신보』(충남대진), 『부산일보』(부산), 『조선시보』(부산), 『마산일보』(마산), 『대구신문』(대구), 『광주신보』(광주, 1912.11. 『광주일보』로 개제), 『목포신보』(목포), 『전주신보』(전주), 『군산일보』(군산), 『평양일보』(평양), 『평양신문』(평양), 『진남포신보』(진남포), 『압강일보』(신의주), 『원산매일신문』(원산), 『민우신문』(함흥), 『북한신문』(청진), 『북한신문』(나남), 『황해일보』(해주) 등이 있으며 이들은 아직 연구되지 않은 채로 산재해 있다.

발행된 지역 신문은 일제하의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선 및 일제 수탈의 면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자료라 할 수 있다.

신문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시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중에서 이재선의 『한말의 신문소설』(한국일보사, 1975), 한원영의 『韓國開化期 新聞連載小説研究』(一志社, 1990), 서광운의 『한국 신문 소설사』(해돋이, 1993)와 『한국 신문 연재소설의 사적 연구』(푸른 사상, 2010), 김영민의 『한국 근대 신문과 근대소설』(소명, 2006) 등은 근대의 신문 연재소설 및 서사문학 자료를 분석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주요 연구 대상은 『황성신문』, 『大韓每日申報』, 『제국신문』, 『漢城旬報』, 『漢城週報』, 『독립신문』 등과 같이 중앙지에 집중된 연구 편력을 보여준다.

이재선은 『한말의 신문소설』에서 지역신문인 「경남일보와 박영운(朴永運)의 신소설」에 대해 다루었다. 이는 『경남일보』에 연재된 소설 하나를 다룬 것일 뿐이다. 한원영의 『한국 현대 신문 연재 소설연구』(국학자료원, 1999)는 『新慶南日報』, 『濟州新聞』, 『嶺南日報』, 『江原日報』, 『忠淸日報』, 『慶南新聞』, 『每日新聞』, 『釜山日報』, 『國際新聞』, 『大田日報』, 『中郡日報』, 『光州日報』, 『京仁日報』, 『全北日報』 등 유일하게 지역신문을 광범위하게 다루었으나, 연재 소설을 대상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모두는 식민지 이후 시기의 신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식민지 시기 동안 한인이 만든 지역신문은 진주지역의 『慶南日報』와 개성지역의 『高麗時報』뿐이다. 그중에서 현재 『高麗時報』에 대한 연구논문은 「『高麗時報』와 시인 박아지(朴芽枝)」²⁾, 「『高麗時報』소개 박아지의 시조 연구」³⁾와 「1930년대 개성지역 신진 엘리트 연구-『高麗時報』동인의 사회문화운동을 중심으로-」⁴⁾, 「근현대 고시조 앤솔로

2) 강영미, 『高麗時報』와 시인 박아지(朴芽枝), 『상허학보』 23집, 상허학회, 2008, 225-249면.

3) _____, 「『高麗時報』소개 박아지의 시조 연구」, 『우리문학연구』 42호, 우리문학회, 2014, 161-184면.

4) 양정필, 1930년대 개성지역 신진 엘리트 연구-『高麗時報』동인의 사회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3호, 한국역사연구회, 2007, 191-217면.

지 편찬방법 연구(1)— 고려시보 소재 고시조(古時調) 작품을 대상으로」⁵⁾, 『高麗時報』 수록 한시에 나타난 松都人의 정체성 연구⁶⁾ 등으로 점차 연구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高麗時報』 전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는 실질적으로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박재청(박아지, 춘파)의 글들은 그의 아들 박광현이 발췌본과 선집⁷⁾을 출간하여 주목받았을 가능성이 큼에도, 시와 시조 외에는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 양정필의 연구 또한 신문에 게재된 수많은 작품에 관한 연구보다는 주식회사로 발전하는 기업적인 시각, 외형적인 신문 동인들의 사회활동만을 분석한 것이다.

강영미의 『高麗時報』소재 박아지의 시조 연구는 카프와 연관된 박일을 『高麗時報』의 발행동인 박재청으로 보고 논구한 것이다. 류덕제⁸⁾는 ‘농민시인’으로 알려진 박일(박아지)과, 『高麗時報』의 박재청(아호: 朴芽枝)은 둘 다 같은 필명인 ‘박아지(朴芽枝)’를 썼을 뿐 다른 인물임을 제기하였다. 류덕제의 논구는 타당성이 있다. 『高麗時報』에 수록된 박재청의 글들은 카프나 농민 운동과 거의 무관하다. 그는 시와 시조뿐만 아니라, 「研究 時變小論」, 「開城人間記」, 「大興山城遊記」, 「金剛山觀叅記」, 「斷想」 등 다양한 글들을 썼는데, 발췌본이 따로 나올 정도의 분량임에도 사회주의나 노동운동과 같은 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재청은 10인 동인들 중 가장 많은 글을 게재하였다.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신문의 주필로서 참여한 10인의 발행 동인들의

5) 김태웅, 「근현대 고시조 앤솔로지 편찬방법 연구(1)— 고려시보 소재 고시조(古時調) 작품을 대상으로」, 『時調學論叢』第55輯, 한국 시조 학회, 2021, 1~18면.

6) 김승룡, 『高麗時報』 수록 한시에 나타난 松都人의 정체성 연구, 『한국문학 논총』 제92집, 한국문학회, 2022, 131~159면.

7) 박광현, 「고리고개에서 추리골까지」, 세기문화사, 2005. 이 책 뒷부분에 ‘박재청’의 신문에 실린 시와 시조를 모아 수록하였다.

8) 류덕제는 「아동문학가 박아지 연구」를 통해 ‘박일’로 알려진 박아지와 강영미가 제기한 ‘박아지(박재청)’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보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류덕제, 『국어교육연구』 제60집, 국어교육학회, 2016, 415~440면 참조.

글들은 당대 문인들의 내밀한 감회나, 그들의 문학적·문화적 교유, 일제 강점기의 시대 인식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더욱이 『高麗時報』는 투고의 기준을 ‘개성시민’과 ‘개성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였기에 지역색이 특히 강하다. 개성 인삼에 관한 역사적 유래, 「正月中 開城寄俗(개성의 이상한 풍속)」같은 ‘개성’에 관한 글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高麗時報』의 주필로서 참여한 10인 동인들은 ‘거화(炬火)공진항(孔鎭恒)’, ‘청농(靑農)김학형(金鶴炯)’, ‘범사초(凡斯超)김재은(金在殷)’, ‘포영(抱永)고한승(高漢承)’, ‘하성(霞城)이선근(李瑄根)’, ‘송은(松隱) 김영의(金永義)’, ‘일봉(一峯)박일봉(朴一奉)’, ‘김귀(金龜)김병하(金秉河)’, ‘마공(馬公)마태영(馬泰榮)’, ‘춘파(春波)박재청(朴在淸)’ 등이다. 본고는 이들 동인들의 글을 검토하여 매체로서의 『高麗時報』가 추구한 지향점, 그들이 추구한 근대에 대한 시각을 근간으로 일제 강점기 개성 지역의 근대 풍경 전반을 규명하고자 한다.

2. 10인 발행 동인들의 의미

『高麗時報』는 1933년에 10명의 동인(同人)이 모여 동인제(同人制)로 발행을 시작했으며, 1935년 6월에 주식회사로 진일보하였다. 초기 발기인(發起人)은 34명이었다.⁹⁾ 당시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된 신문으

9) 김정호(金正浩), 김기영(金基永), 박봉진(朴鳳鎭), 여운형(呂運亨), 황중현(黃中顯), 최인용(崔仁鏞), 우상순(禹相淳), 윤영선(尹永善), 김학형(金鶴炯), 김천호(金天浩), 하규항(河奎栴), 공진항(孔鎭恒), 박영균(朴永均), 박광진(朴廣鎭), 임한조(林漢祖), 김재은(金在殷), 고한승(高漢承), 최선익(崔善益), 장희순(張熙淳), 이윤수(李允秀), 박상우(朴尚愚), 홍이표(洪利杓), 이선근(李瑄根), 이세환(李世煥), 김병하(金秉河), 이근태(李根泰), 진호섭(秦豪燮), 김진원(金鎭元), 마태영(馬泰榮), 박상유(朴尚裕), 김희정(金喜正), 박상순(朴尚舜), 김동표(金東杓), 그리고 박재청(朴在淸) 등. 현존하는 고려시보 원본은 (주)만몽산업과 개성양조장의 김용남(金龍南)증

로 해방이 되고 속간되어 6.25 전쟁 전까지 발행되었던 신문이다. 속간된 신문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실된 것을 제외한 전체 복사본과 박광현(박재청의 子)이 박재청의 글만을 선별한 발췌본이 있다. 2018년 3월, 원본이 기증되었다고 하나, 이것은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열람할 수는 없다. 제1호 전체, 제2호 1-4쪽, 제42-47호, 95호, 103호, 119호, 125호, 144호는 없는 상태다. 10인 동인들은 다음과 같은 필명으로 글을 기고하였다.

공진항은 ‘거화’, ‘공진항’, ‘공탁’등으로, 박재청은 초기에는 부장으로, 이후에는 주필로 활동하며 본명인 ‘박재청’과 ‘춘파(春波)’, ‘박아지(朴牙枝)’ 등¹⁰⁾으로 글을 기고하였다. 시나, 시조를 쓸 때는 ‘춘파’였으나, 기타의 글은 ‘박아지’나 ‘박재천’ 등으로 활동하였다. 김학형은 ‘청농(靑儂)’ 혹은 김학형(金鶴炯)으로, 김재은(金在殷)은 ‘범사초(凡斯超)’ 혹은 ‘김재은’으로 글을 기고하였다. 고한승은 창작을 할 때는 ‘포영(抱永)’으로 활동했지만, 사설이나 신문 기사를 쓸 때는 고한승(高漢承)라는 본명으로 활동하였다. 이선근(李瑄根)의 경우는 본명으로 대부분 활동하였다. ‘하성(霞城)’이라는 필명이 있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송은(松隱) 김영의(金永義) 또한 필명과 본명을 구분하여 활동하였다. 시를 쓸 때는 ‘松隱’으로, 사설이나 기행문을 쓸 때는 ‘金永義’라는 본명을 썼다. 일봉(一峯) 박일봉(朴一奉)은 필명과 이름이 같았지만, 박일봉 또한 필명과 본명을 구분하여 썼

역이 6.25 전쟁 이후 서울 근교의 인삼포에 갔을 때 우연히 구입한 것이다. 김용남은 개성출신 인부의 집에서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고려시보 신문철을 뜯어 태우는 것을 보고서 후하게 사례하여 입수하였는데, 창간호의 앞부분은 이미 소실된 상태였다. 후에 김용남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 원본을 (주)고려인삼공업 유영준(劉永駿)사장에게 넘겨주었고, 유영준은 2000년 경 이를 개성시민회에 기증하였다. 이 원본에는 1941년 폐간되기 전까지 발행되었던 신문만이 포함되어 있다. 해방 이후의 발행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혹은 발견되었으나 보급되지 않았음) 박광현, 『고리고개에서 추리골까지』, 세기문화사, 2005, 210면 참조.

10) ‘춘파’와 ‘박아지’는 박재청의 雅號임을 素竹 김진원이 밝히고 있다. 「송도에 있을 죽마고우 박재청형을 상기하며」, 『송도지』 47호, 1992.9. 박광현, 『고리고개에서 추리골까지』, 세기문화사, 2005, 309면의 자료 참조.

다. '김귀(金龜)김병하(金秉河)'는 주로 김귀로 글을 썼으며 공신력이 있는 글은 김병하로 썼다. '마공(馬公)마태영(馬泰榮)'은 마공보다 마태영이라는 본명을 더 많이 썼다. 춘파(春波) 박재청(朴在淸) 또한 춘파, 박아지, 박재청이라는 이름을 구분하여 기고하였다. 여기서 범사초 김재은은 마지막 호인 152호까지 時論을 본명으로 기고하였고, 공진항은 고려시보사의 폐간 공고 「九年の歴史를남기고本報今日로써廢刊과 「廢刊辭」를 '공탁'으로 기고하였다. 10인의 발행 동인들은 고정란을 각각 맡아 역사탐방문, 시론(時論), 평론, 사설 등을 썼으며, 폐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예 글을 창작하여 기고하였다.

『高麗時報』는 여느 신문과 달리 신문의 면수가 매번 달랐다. 『慶南日報』가 총 4면에, 한 면당 6분할로 기사를 썼다면, 『高麗時報』는 총 면수가 6~12면으로, 총 면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한 면의 구성은 가로 8분할이었다. 매해 정월 보통 12면을 발행하였고, 매월 1일과 16일, 정규적으로 한 달에 2회 발간했으나,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발행하기도 하였다. 창간호부터 발행동인들의 글들은 신문 전면에 대거 투입되었다.

일반적으로 신문은 논설 및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이다. 사건과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수행하지만, 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고,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사로 쓴다. 그러한 글을 '신문 기사'라 일컫는다. 『高麗時報』는 구독자보다는 발행 동인들의 의도가 지배적인 매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초기의 『慶南日報』가 독자에 의해 소설의 지면이 점차 확장된 것과 달리, 『高麗時報』는 창간호부터 연작소설을 게재할 만큼 문학성이 강한 신문이었다.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는 정보지의 역할보다는 '개성'지역의 역사와 문화 탐방, 근대 교육 및 문예지로서의 역할에 치중하였다. 예컨대, 박아지(박재청)의 〈病窓漫筆〉은 고정란이었는데, 대략 〈奇拔한 入院〉¹¹⁾과 〈담배와 병자〉¹²⁾와 같은 산문이 실렸다.

11) 소화8년, 5월 1일, 제2호, 7면.(총12면, 11~12면은 광고)

12) 소화8년, 5월 16일, 제3호, 9면.(총12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제 강점기 근대화된 개성의 일상을 짐작케 하는 글이다.

春波(박재청)란 필명으로 기고한 <『굿』 禁止에 對하여(좀 더 徹底하라-귀신을 파는 무녀 쓰지 못할 굿)>은 ‘굿’이 근대 가치에 반하는 미신임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춘파(박재청)의 <觀公園夜樓¹³⁾>와 같은 한시와 그의 수많은 창작 시조들은, 『高麗時報』가 일반 신문과 달리 문예지로서의 역할에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박재청의 ‘研究 <時邊小論¹⁴⁾>’은 ‘머리말과 함께, (1. 起源 2. 制度-상공업의 발전의 중요성. 時邊制度), (三, 決濟期 四, 仲介人)¹⁵⁾ 등으로 연재되었다. 일종의 논문 형식인 이 글은 ‘물과 現의 교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중개인이 필요하지만 시변 貸借에 있어서는 중개인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번호로 장을 나누어 쓴 이 논문형식의 글은 형식과 용어 면에서 상당히 근대적임을 추정할 수 있다. <青春哀話 깨여진 젊은꿈(一)>¹⁶⁾과 같은 연재글, ‘개성인의 신장비율이 현 재보다 오륙천 커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高麗社의 六層社屋 開城人의 키도 커진다.-오십년후>¹⁷⁾, 소설 <白日夢>¹⁸⁾도 박재청¹⁹⁾이 쓴 글들이다. 박재청은 거의 매 호마다 시와 시조, 콩트, 수필 등을 썼는데, 이는 다른 발행 동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양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만, 발행 동인들은 모두 다양한 장르의 창작 문예 글과 연재문을 실었다.

범사초 김재은은 <獨逸의 大學都市-『하이델뵤히의 追憶』²⁰⁾>와 같이 ‘서양의 철학자와 서양 문물’, 독일의 산수와 江畔등, 과학을 기반으로 이

13) 소화8년, 5월 16일, 제3호, 2면.(총12면)

14) 소화8년, 6월 1일, 제4호, 2면.(총10면)

15) 소화8년, 6월 16일, 제5호, 2면.(총10면)

16) 박재청의 수필. 소화8년, 6월 1일, 제4호, 9면. 총 8분할에서 5분할 차지할 만큼 내용이 길다.

17) 박재청의 글, 소화8년, 7월 1일, 제6호, 5면.

18) 소화8년, 7월 16일, 제7호, 10면.(총10면)

19) 시의 경우는 춘파로만 기고하였고, 주로 한글 시조를 많이 썼다. 예컨대, 시조 <善竹橋> 시조의 형식 4음보 34343543의 형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20) 소화8년, 5월 16일, 제3호, 8면.(총12면)

루어진 서양 도시문물을 주로 소개하는 고정란에 글을 기고하였다. 〈印度洋上의 錫蘭島〉, 〈大勢의 變遷으로〉²¹⁾, 〈好壽敦救주의 出現에 對한 片感〉²²⁾, 〈삼립탐보〉²³⁾를 연재하였으며, 〈스면, 드면 錄(본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²⁴⁾과 같은 자전적 글, 〈물〉²⁵⁾과 같은 수필, 〈西遊片想〉²⁶⁾ 글을 사설 등도 기고하였다. 범사초의 글 또한 문예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김재은은 서양에 관한 많은 글들을 기고하고 소개함으로써 개성지역의 발전 방향이 서양의 문물과 교육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송은(松隱) 김영의는 〈글자와 經驗〉²⁷⁾이란 고정란을 통해, ‘사람도 동물의 하나인 까닭에 먹을 것을 얻으려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먹을 것과 쓸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경제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北美 뿔누리즈의 여름〉²⁸⁾과 같은 수필도 썼지만, 〈떼목이 떠갈때〉 〈어느 것을〉 〈첫여름의 江바람〉 〈鴨綠江〉, 〈꿇든피야〉 〈치운 첫 봄날〉,²⁹⁾ 〈六月의 달밤〉 〈기운죽일 까닭이없읍니다〉 〈말할 것이 무어야요〉³⁰⁾ 〈길이 險하다니〉³¹⁾의 자유시, 〈봄의 수필-첫봄비 오는밤〉³²⁾과 같은 수필도 썼다. 송은도 서양 문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하성 이선근 또한 연재문을 썼다. 〈高麗遺蹟巡禮...府內篇(一) 滿月臺의 宮址〉³³⁾는 일종의 역사 탐방문이다. 논문 형식을 빌어 머리말과 함께

21) 소화8년, 7월 1일, 제6호, 5면.(총10면)

22) 소화16년, 4월 16일, 152호, 10면.(총12면)

23) 소화10년, 7월16일, 제24호, 12면.(총12면)

24) 소화8년, 7월 16일, 7호, 5면.(총10면)

25) 소화8년, 8월 16일, 9호, 7면.(총10면)

26) 소화10년, 5월1일, 20호, 8면.(총12면)

27) 소화8년, 5월 1일, 제2호, 7면.(총12면, 11~12면은 광고)

28) 소화8년, 7월 16일, 제7호, 6면.(총10면)

29) 소화8년, 8월 1일, 제8호, 11면.(총10면)

30) 소화8년, 7월 1일, 제6호, 9면.(총10면)

31) 소화8년, 8월 16일, 제9호, 9면.(총10면)

32) 소화8년, 5월 16일, 제3호, 9면.(총12면)

33) 소화8년, 5월 16일, 제3호, 7면.(총12면)

만월대 사진을 실었다. 고려의 유적지인 ‘만월대’는 이선근뿐만 아니라, 여러 발행 동인들이 주로 썼던 주제였다. 발행 동인들 간의 문학적 교류는 이선근의 역사 탐방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이선근이 〈滿月臺〉를 쓰면, 春波가 같은 면에 〈滿月臺〉라는 시를 게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高麗時報』의 여러 지점에서 수행되었다. 이선근이 〈고려유적순례 부내편(二)에 〈善竹橋의 血痕〉을 썼다면 春波가 필명으로 〈선죽교〉라는 시를 쓰는 방식이다. 춘파의 〈南大門〉과 〈樓上巨鐘〉시조 또한 이선근 글 중간에 기고하여 고적 탐사에 대해서는 함께 그 감회를 공유하며 교류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선근 또한 〈仁川月尾島의 夕陽〉³⁴⁾와 같은 수필을 쓰기도 하였다.

일본 박일봉은 주로 시나 〈우리의 勝景朴淵瀑布〉, 〈新綠禮讚〉³⁵⁾ 〈우리의 勝景(뛰어난 경치)朴淵瀑布〉³⁶⁾와 같은 감상문을 썼다. 춘파 박재청이 시조를 주로 썼다면, 박일봉은 〈幸福1933.4.〉³⁷⁾과 같은 자유시를 썼다. 박일봉은 춘파와 달리 창작시에 대해 그 창작년도를 기입했다. 예컨대, 〈거룩한 圓滿〉1932, 〈半달의노래1932〉, 〈오죽하나인친구1933〉, 〈倦怠를 느끼는사람들1933〉, 〈목숨(生命)1933〉과 같은 방식인데, 이는 일본 수기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高麗時報』는 창간호부터 폐간호에 이르기까지 소화로 발행일을 표기했다. 단기도 아니고 서기로 년도를 표기한 일은 사소한 일이나, 발행 동인의 지향점이 일본에 있지 않고 서양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다. 근대문물의 좋은 사례로 독일과 같은 서양 문명을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시는 보통 한편만 게재하지 않고 여러 편을 함께 실었다. 〈사랑은?1933.2〉, 〈마음의 태엽 1932〉³⁸⁾, 〈여름의 黃昏〉 1932.06~33.8까지 지은시)³⁹⁾, 〈거룩한 圓滿

34) 소화8년, 7월 16일, 제7호, 6면.(총10면)

35) 소화8년, 6월 1일, 제4호, 8면.(총10면)

36) 소화8년, 7월 16일, 제7호, 7면.(총10면)

37) 제3호, 8면 맨 아래 수록.

38) 제3호, 9면 8분할의 맨 끝에 수록.(총12면)

1932), 〈半달의노래1932〉, 〈오죽하나인친구1933〉, 〈倦怠를느끼는사람들 1933〉, 〈목숨(生命)1933〉, 〈아 인간아 너는 행복되다〉⁴⁰⁾ 등은 일부 구체적 연월일이 표기되어 있어, 1930년대의 자유시를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거화 공진항은 박재청만큼 필명이 많은 편이다. ‘거화’와 ‘공탁’으로도 활동했지만, 본명 공진항으로도 자주 글을 기고했다. 거화 또한 〈歐羅巴의 將來(一)〉⁴¹⁾이라는 제목으로 연재글을 실었다. 공탁 역(孔濼譯)으로 〈人格論-人格의 感化力〉 스마일쓰 原著⁴²⁾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현금과 보물은 남기지 못하나, 인격은 한 재산이라는 스마일쓰의 철학이 담긴 글이다. 공탁은 〈異彩인 體育大學-禮成江의 大運河實現〉⁴³⁾, 〈여름의 『제네쁘』 湖水〉⁴⁴⁾와 같이 서양문물을 주로 번역 소개하였으며, 박재청과 같이 문예적인 글은 많이 기고하지 않았다.

청농 김학형은 〈自省數題-나의 日記속에서〉⁴⁵⁾, 〈남원기행-광한루의 옛 자좌-춘향 烈婦祠를 보고〉⁴⁶⁾와 같은 기행문과 〈自省數題-나의 日記속에서〉 등과 같은 수필을 주로 썼다. 에너지를 아끼고 귀하게 쓰자,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自省數題〉는 일종의 자전적 글이라 할 수 있다. 〈남원기행〉과 〈白沙青松의 元山海岸〉⁴⁷⁾은 기행문들이다. 김학형은 靑儂(나 농)이라는 필명으로 〈自人錄〉⁴⁸⁾은 썼으나 필명보다는 본명을 더 많이 썼다.

김귀 金秉河는 〈녀자로써알아들 봉선화 심는법〉⁴⁹⁾, 〈地上樂園의 鬱陵

39) 소회8년, 9월 1일, 제10호, 6면.(총10면)

40) 소회10년, 6월 1일, 제21호, 8면.(총12면, 12면은 광고)

41) 소회8년, 5월 1일, 제4호, 2면.(총10면)

42) 소회8년, 5월 1일, 제4호, 5면.(총10면)

43) 소회8년, 7월 1일, 제6호, 5면.(총10면)

44) 소회8년, 7월 16일, 제7호, 6면.(총10면)

45) 소회8년, 6월 1일, 제4호, 6면.(총10면)

46) 소회8년, 6월 16일, 제5호, 6면.(총10면)

47) 소회8년, 7월 16일, 제7호, 6면.(총10면)

48) 소회8년, 8월 1일, 제8호, 7면.(총10면)

49) 소회8년, 6월 16일, 제5호, 8면.(총10면)

島)⁵⁰), 〈고양이와 쥐〉⁵¹) 썼다. 〈生物의 壽命〉⁵²)은 여러 동물들의 수명에 대하여 논한 글이며, 〈世界珍聞〉⁵³), 〈瑞典博物學者〈『뻬』 博士會見記〉⁵⁴)은 金龜라는 피령으로 근대 지식을 소개하였다. 김병하는 제일 먼저 동요나 동화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제16호부터 조류와 곤충에 대한 동요 등을 조사하여 〈조류와 곤충을 주제로 한 동요 小考〉⁵⁵)를 썼다. 갈매기, 오리 제비, 잠자리 가을새, 민충이, 귀뿔이 기럭이, 암닭숫닭, 이, 귀뜨람이 등의 조류 등 동요에 등장하는 조류와 곤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는 『高麗時報』가 어린이에게까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 독자들을 위한 고정란은 김병하가 주도하였다. 예컨대, 김병하가 연재하는 〈婦人欄〉에는 〈쌀은 요즈음에 풋기어 두십시오〉⁵⁶)와 같은 부인들이 알아야 할 생활 상식을 소개하고 있다. “바구미가 생기는 때 한번 뚜껑을 여러제키고서드러다보십시오. 만일 『바구미』가 없다고 안심하시고 그대로 덮어두시면 안됩니다.”와 같은 내용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쓴 글이다. 金秉河는 주로 이름을 한자로 썼지만, 〈부인란〉에는 ‘김병하’라는 한글로 썼다. 한글에 익숙한 부인들을 배려한 것이다.

포영 고한승은 많은 글을 쓰지는 않았다. 〈單科大學이 나고 高麗時報는 日刊으로〉⁵⁷), 〈南쪽나라 濟州島〉⁵⁸) 등 몇몇 사실과 한국 지역에 대한 감회를 썼다. 하지만, 『高麗時報』 제1호부터 연작한 〈十字路〉라는 소설의 3회차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소설 외에 다른 발행 동인들과 달리 그의 문예활동은 활발하지 않았다.

50) 소화8년, 7월 16일, 제7호, 7면.(총10면)

51) 소화8년, 8월 16일, 제9호, 8면.(총10면)

52) 소화8년, 5월 16일, 제3호, 7면.(총12면)

53) 소화8년, 8월 16일, 제9호, 9면.(총10면)

54) 소화10년, 5월 1일, 제20호, 9면.(총12면)

55) 소화9년, 1월 1일, 제16호, 13면.(총 14면)

56) 소화10년, 6월 16일, 제22호, 9면.(총10면)

57) 소화8년, 7월 1일, 제6호, 5면.(총10면)

58) 소화8년, 7월 16일, 제7호, 7면.(총10면)

마공 마태영도 포영 고한승과 같이 신문에 많은 글을 기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文化的으로 黃金期-經濟方面으로는 頹廢⁵⁹⁾〉라는 사설로 당대의 분위기를 논하였고, 〈달빛흐르는 鴨綠江⁶⁰⁾〉과 같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대상에 대한 감회를 쓰기도 하였다. 중요한 점은 글을 많이 기고하지 않았더라도 발행 동인 모두가 한국의 역사와 의미 있는 대상에 대해 글을 기고했다는 점이다.

발행 10인 동인들의 글들은 ‘한국지역의 역사 탐방’, ‘서양 문물과 서양 교육’, ‘문학’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0인 발행 동인들은 문학 작품을 모두 창작할 정도로 문학활동에 주력하였다. 이는 독자투고란으로 연계되어 수시로 많은 개성시민들의 작품을 신문에 할애하였다.

일제의 강압이 점점 심해지는 1930년대 후반에는 一記者, 天摩山人(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사는 사람), 天摩山人(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사는 사람), 松都(개성의 옛이름)散人(세상을 버리고 한가하게 사는 사람) 등의 글들이 대거 등장한다. 제1면에 항상 기재되어 있는 〈皇帝臣民 / 誓詞(서사: 맹세하는 말)은 당대 『高麗時報』가 얼마나 엄혹한 현실에서 신문발행을 유지했는지 보여준다.

1941년 4월 16일 52호 1면에 공탁은 〈폐간에 제하야〉를 썼다. 발행동인들의 사진과 함께 『高麗時報』의 제1호부터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글을 통해 소실된 제1호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개성지역에 국한된’ 독자투고란의 요건처럼, 발행 동인들은 개성지역의 문화경제,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며 조선의 근간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중앙의 정치 기사나 일제 강점기의 엄혹한 현실에 관한 글은 배제했으며, 서양 문물과 서양의 대학들을 소개하며 근대화의 목표가 서양에 있음을 시사하였다. 『高麗時報』가 신문 기사가 아닌 문예 글에 주력하며 여러 투고 통로를 통해 독자를 확보한 것은, 한국의 유구한 역

59) 소화8년, 7월 1일, 제6호, 5면.(총10면)

60) 소화8년, 7월 16일, 제7호, 6면.(총10면)

사와 문학의 대중화를 통해 당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신적 저항이었을 것이다.

3. 일제강점기 개성지역의 근대 풍경의 특성

『高麗時報』는 근대초기 지역신문인 『慶南日報』와 몇 가지 변별되는 지점이 있다. 『慶南日報』는 1909년 10월 15일 국한문체로 창간된 총 4면의 신문이다. 1915년 초까지 총 887호가 발행되었으며, 근대 법률과 행정에 관한 기사가 주된 내용이었다. 총 4면의 1면에는 고정란, 〈外報〉와 〈現行法令〉, 〈地方民權自治制〉, 〈三綱의 逸史〉, 〈詞藻〉 등이 구성되어 있고, 〈현행법령〉란에는 ‘民籍法’, ‘國稅徵收法’, ‘家屋稅法’, ‘森林法’, ‘漁業法’과 같은 법령을 매회 소개하고 있다.⁶¹⁾ 근대 법령 위주로 도배된 『慶南日報』가 철저한 국한문체를 고수하여 ‘지역 지식인’들을 위한 신문이었다면, 『高麗時報』는 국문을 더 많이 사용하여 ‘지역민’과의 소통을 초기부터 유도하였다. 국한문체였던 『慶南日報』가 점차 한글을 확장하고 소설을 1면에 게재하며 독자를 확보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면, 『高麗時報』는 창간호부터 매체 정보지로서의 역할보다 문예지로서의 역할을 주도하였다. 『慶南日報』의 지면이 문학에 극히 보수적이었다면, 『高麗時報』는 발행 동인 10인 뿐만 아니라, 개성시민 투고자들에게도 여러 장르의 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지면을 확대하였다.

일제 강점기임에도 『高麗時報』가 10여년 가까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부터 정치성을 배제한 이유때문이었다. 오히려 그러한 의도로 인해 이 신문에서 보이는 지역성은 더 두드러진다. ‘개성’ 특유의 지역성과 ‘근대’를 전면에 내세운 『高麗時報』는, 초기에는 서양문화와 유럽의 대학,

61) 줄고, 「근대초기 한국의 지역신문 연구」, 『우리어문연구』 통권74호, 우리어문학회, 2022, 13면.

일상적 소감 및 기행문, 역사 탐방등을 근간으로 신문 내용을 구성하였고, 대부분을 10인 발행 동인들의 글에 의존하였다.

공진항이 번역한 「人格論」(스마일쓰 原著), 「新舊衝突에서 新舊協同으로」, 「歐羅巴의 將來」, 「異彩인 體育大學」禮成江의 大運河實現, 김학형이 연재한 「自·省·數·題」나의 日記속에서-, 「廣寒樓의 옛자취」春香烈 婦祠를 보고, 범사초 김재은의 「생각나는 異國情調」, 「獨逸의 大學都市」『하이델뵐히』의 추억, 「第二代貞和女校長 金銀弘女士訪問記」, 「大學의 變遷으로 劃時期的轉換」, 「世界見學」, 「表情」, 「想林探步」, 「時事小感」, 「性味群像」(隨想), 「所感兩題」, 「우리의更生을爲하여 生活의 簡易化를 提唱한다」, 「新開城의 建設圖」, 「好壽敦救主의 出現에 對한片感」, 포빙 고한승의 「東京의 學窓生活」『盛夏의 嵐山』의 淸遊, 「府民輿論에 鑑하여 實現을 運動 하겠다」(府民會 高漢承氏談), 「單科大學이나고 高麗時報는 日刊으로」, 하성 이선근의 「高麗遺蹟巡禮·[府內篇]과 같은 탐방문, 송은 김영희의 「글字와 經驗 金永義」, 일봉 박일봉의 「本能, 滿足, 幸福」, 김귀 김병하의 「胡蝶의 연애관」, 「地下金剛인 蝮龍窟을 찾아서」, 마공 마태영의 「文化的으로 黃芑期」등은 연재글이다. '동경의 학창 생활'이라는 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식민지 상황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 들어있다는 점이다.

박아지⁶²⁾(朴芽枝, 1905~1959)의 <<病窓漫筆>> 奇拔한入院⁶³⁾은 당시 근대 병원에서 겪은 통상적인 경험담을 서술한 글이다. 입원을 유쾌로 보며 소소한 소회를 적은 이글은 간호부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근대화된 1930년대의 일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글이다. 중요한 점은 일제 강점기임에도 식민지의 그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고한승의 <동경의 학창생활>에서의 일본은 개성 근교를 거니는 것만큼 일상적이며 자연스럽게 묘사되고 있다.

춘파(春波)⁶⁴⁾의 <『곳』 禁止에 對하여 좀 더 徹底하라>는 귀신을 피는

62) 박계청의 필명 중 하나.

63) 소화8년, 5월 1일, 제2호, 7면.(총12면)

무너를 비판한 글이다. 곳을 ‘쓰지 못할 곳’이라 칭하며, ‘곳으로 인해 미개한 조선은 문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거름이 뒤떨어진다⁶⁵⁾’고 하였다. ‘곳을 하려거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마무리한 이글은 미신을 터부시하고 근대 문명을 지향하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이는 『高麗時報』가 일제에 대한 저항 대신 역사탐방과 서양문물, 유럽의 대학을 연속적으로 소개하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김재은의 〈獨逸의 大學都市-『하이텔빨히의 追憶』⁶⁶⁾도 ‘곳’을 터부시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서양 도시에 대한 묘사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찬양에 가깝다. 과학기반의 도시, 하이텔빨히는 1930년대의 개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영의의 〈글字와 經驗〉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빗대어 빈곤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람도 동물의 하나인 까닭에 먹을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먹을 것과 쓸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람이 동물보다 다른 것은 생을 비판하려는 자세가 있기 때문’⁶⁷⁾이라는 이 글의 귀결은 당시 사회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김영의는 식민지 현실을 비판이 아닌 철학적 질문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글들을 통해 1930년대의 개성은 여전히 전통과 근대가 혼재되어 있으며 빈곤문제 역시 사회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태영의 〈文化的으로 黃金期經濟方面으로는 頹廢⁶⁸⁾〉에서도 1930년대의 개성을 엿볼 수 있다. 문화적으로 황금기이나, 경제적으로 퇴폐적이라는 이 글의 귀결은 경제 방면의 낙후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결국 인간 본연의 퇴폐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高麗時報』가 투고란을 통

64) 박재청의 필명 중 하나.

65) 소화8년, 5월 16일, 제3호, 3면.(총12면)

66) 소화8년, 5월 16일, 제3호, 8면.(총12면)

67) 소화8년, 5월 1일, 제2호, 7면.(12면)

68) 소화8년, 7월 1일, 제6호, 5면.(총10면)

해 문학의 대중화를 시도했던 만큼, 발행 동인들 모두는 문학 작품을 주도적으로 쓰고 기고하였다. 1930년대의 개성은 사회 전반에 걸쳐 문예의 열망이 충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10면에서 8면으로, 혹은 6면으로 신문지면이 줄었던 와중에도, 독자의 글이 당선되어 게재할 때에는 최고 12면까지 신문지면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高麗時報』는 이하운(異河澗, 1906~1974)⁶⁹)과 같은 시인의 글뿐만 아니라, 소설가 이기영, 엄홍섭, 이무영 등의 유명 소설가들의 장편 연재소설⁷⁰)을 신문지 한 면 전체에 실기도 하였다.

제20호부터는 『高麗時報』에 몇 가지 변화가 관측된다. 발행동인들의 글이 대폭 줄고, 松都⁷¹)閑人, 한괴生의 자유시, P生의 〈漫感數言高〉의 사설(私說), 小竹學人의 〈경제상용어의 연구⁷²)〉, S.C 生의 〈總選舉⁷³)〉 뒤둔 齊一次府會議傍聽記)과 같이 필명의 글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필명이라기보다 익명에 가까운 필자들의 글들은 10인 발행인들의 글일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高麗時報』는 연재했던 글을 중단하거나 문예지면을 축소하지 않았다. 개성인들이 그만큼 문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오히려 시와 소설, 수필에 국한되었던 문학의 영역을 확대하여 희곡을 연재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김재은은 〈문예창작란〉에 희곡 〈3막극-〈뜨구름의 悲歎〉을 연재하였다.

앞장에서 언급한 ‘부인란’에서 김병하(한글)의 순한글로 쓴 〈婦人欄-〈쌀은 요즈음에 풋기어 두십시요〉⁷⁴)〉, 〈여름철에 겨울양복 간수법⁷⁵)〉, 〈여름

69) 이하운(異河澗)(1906~1974) 3호, 7면의 〈벤틀〉시조(1931년 가을 만월대에서), 3호, 7면. 시인·영문학자. 아명은 대벽(大闢), 후에 항렬을 따라 하운으로 개명하였다. 호는 연포(蓮圃). 강원도 이천(伊川) 출신이다. 인명사전 참조.

70) 이기영은 〈聖火〉를, 체만식은 〈성희〉를, 엄홍섭은 〈수평선〉을 썼다. 모두 장편 연재 소설로 거의 맨 마지막 면에 수록하였다. 소설의 유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71) 개성의 옛 이름.

72) 소화10년, 6월 16일, 제22호, 10면.(총10면)

73) ‘를’의 오가-23호, 4면, 소화10년, 7월 1일.

74) 위의 년도, 제22호, 9면.(총10면)

철어머니로써 알아두실몇가지)⁷⁵⁾ 등은 『高麗時報』가 여성들까지 독자로 인정한 부분이다. 이로 보아, 1930년대의 개성은 ‘한복’보다는 ‘겨울양복’을 입었고 다양한 문학 장르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고려시보 어린아-오날>와 같이 ‘어린아’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제24호에는 고한승(이름을 한글로 기입, 어린이를 배려함)이 <호랑이와 노루>라는 동화를 게재했다. 속간부터 게재한 동요의 노랫말이나 동화는 『高麗時報』가 신문을 읽는 독자로서 ‘어린아’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高麗時報』에 가장 많이 수록된 글은 기행문과 역사 탐방문, 지명에 얽힌 감성을 적은 시와 수필이 많다는 점이다. 박재청의 <금강산 관참기>, 마태영의 <달빛흐르는 鴨綠江>⁷⁷⁾, 김학형의 <남원기행-광한루의 옛자취-춘향 烈婦祠를 보고>⁷⁸⁾과 같은 글들은 개성시민이 역사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장편소설을 세 편이나 연재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기영의 <聖火>, 이무영의 <성희>, 엄홍섭의 <수평선> 등은 8분할의 신문지 한 면 전체를 채울 만큼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63호에서는 제1면에 춘과의 <귀한 아이의 네돌생일을 맞으면서> 국한문체-『귀한 아이 高麗時報가 어느덧 네돌생일을 맞는다』⁷⁹⁾라는 창간 4주년에 대한 기념사가 실린다. 『高麗時報』를 ‘귀한 아이’라 호칭한 점은 발행 동인들이 이 신문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시기부터는 <국제문제>에 관한 기사가 속속 등장하면서 일본과 연계된 세계 정세에 대해 주목하였다.

제127호⁸⁰⁾ 1면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천황과 천황비의 사진이 등장한다.

75) 소화10년, 7월 1일, 제23호, 9면.(총10면)

76) 소화10년, 제24호, 11면.(총12면)

77) 소화8년, 7월 16일, 7호, 7면.(총10면)

78) 소화8년, 6월 16일, 제5호, 6면.(총10면)

79) 소화12년, 4월 1일, 제63호, 1면.(총6면)

‘성수무강’이라는 축원과 함께 〈신년사〉를 게재하면서 처음으로 식민지 현실을 전면에 내보였다. 제132호 1면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본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호수돈고등여학교〉⁸¹⁾에 관한 기사를 일본어로 한 지면 전체를 채웠다. 소화16년 1월16일자 제146호 1면에서는 국한문으로 ‘황국신민’이라는 용어가 일본어로 등장하면서 결국, 제152호⁸²⁾ 1면에 공탁의 〈폐간에 제하야〉가 실린다. 1930년대 후반에는 6면이었던 『高麗時報』는 1941년 4월16일 12면의 쪽수를 모두 채우고 폐간하였다.

『高麗時報』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테제는 지역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정치성을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정치적이다는 점은 그들이 문학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엿볼 수 있다. 신문에 등장한 다양한 글들은 정치성을 철저히 배제하며 근대의 일상을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지식인들의 다양한 방식의 문화적 교류와 형상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高麗時報』를 통해, 1930년대와 1940년대 초반의 개성 시민들은 문학적 영역을 확장하였고, 식민지인이 아닌 근대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4. 결론

지금까지 『高麗時報』의 10인 동인들의 글을 살펴보고 일제 강점기 개성의 근대 풍경을 논구하였다. 보통 신문의 역할은 현재의 사건, 사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高麗時報』는 현재의 사건·사고나 정치적 문제보다는, 역사와 교육, 문학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였다. 정치성은 배제하고, 사회적·문화적

80) 소화15년, 1월 1일.(제127호-총10면)

81) 소화15년, 3월 16일, 제132호, 3면.(총4면)

82) 소화16년, 4월 16일, 152호.(총12면)

상황만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록하였다.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한 결과로, 『高麗時報』에는 당시 개성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발행 동인들의 노력과, 변화하는 개성지역의 근대 풍경과 문화적 양상이 적시되어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지역 문인들’의 내밀한 감회나 문학적 교류 방식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高麗時報』의 가치와 중요성은 명확하다.

식민지 조선을 문학으로 극복하려는 발행 동인들의 노력은 신문지면의 유동적인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高麗時報』의 집필진들은 수시로 투고를 독려하고, 많은 지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시민의 글을 할애하면서 문학의 대중화에 힘썼다. 주요 신문 매체의 지면이 고정적인 데 비해, 『高麗時報』의 지면이 6~12면까지 편차가 컸던 이유가 그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문학의 대중화에 주력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지역신문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기록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지역의 역사를 복원하고 각 지역만이 지닌 특수한 풍경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신문의 연구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앙지에 집중되었던 편향적인 연구를 극복하고, 지역신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그 연구 지평이 확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高麗時報』(2호 4면~152호) 복사본, 박광현 기증본, 2010.

『(開城) 高麗時報拔萃：郷土寫眞，重要記事 및 春波 朴在淸(朴芽枝)氏作品 高麗時報』，
[서울：第一航易，朴光鉉편]，1979，영인본.

박광현, 『고리 고개에서 추리골까지』, 세기문화사, 2005.

2. 국내자료

강영미, 『『高麗時報』와 시인 박아지(朴芽枝)』, 『상허학보』 23집, 상허학회, 2008.

_____, 『『高麗時報』소개 박아지의 시조 연구』, 『우리문학연구』 42호, 우리문학회, 2014.

김영민, 『한국의 근대 신문과 근대소설』, 소명, 2006.

김승룡, 『『高麗時報』 수록 한시에 나타난 松都人의 정체성 연구』, 『한국문학 논총』 제92집, 한국문학회, 2022.

김태웅, 「근현대 고시조 앤솔로지 편찬방법 연구(1)— 고려시보 소재 고시조(古時調) 작품을 대상으로. 『時調學論叢』 第55輯, 한국 시조 학회, 2021.

김희주, 「근대초기 한국의 지역신문 연구」, 『우리어문연구』 통권74호, 우리어문학회, 2022.

류덕제, 「아동문학가 박아지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60집, 국어교육학회, 2016.

양정필, 「1930년대 개성지역 신진 엘리트 연구-『高麗時報』 동인의 사회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3호, 한국역사연구회, 2007.

이재선, 『한말의 신문소설』, 한국일보사, 1975.

서광운, 『한국 신문소설사』, 해돋이, 1993.

한원영, 『韓國開化期 新聞連載小説研究』, 一志社, 1990.

<Abstract>

Study on the modern landscape of Gaeso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 on the 10-person publisher of the Koryeosibo
newspaper(1933~1941)

Kim, Hee J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odern landscape of the Kaesong region at the time through the writings of the 10 publishers of 『高麗時報』. 『高麗時報』, which played a role as a cultural foundation for Gaesong citizens and writers, was founded on April 16, 1933, and was closed on April 16, 1941, due to Japan's media consolidation policy. It was the only Korean local newspap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as.

『高麗時報』 is a newspaper with such strong regionalism that its submission regulations are limited to ‘Gaesong’. It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at it provides a glimpse into the history of the region by providing a glimpse into the special scenery of the Gaesong reg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ich can only be glimpsed in the Gaesong region, such as 「正月中 開城寄俗(The Strange Customs of Gaesong)」. In particular, the writings of various genres by the 10 members who shared the history of publication and closure have great research value in that they can trace the writers' inner feelings, literary exchanges, and perceptions of the times. 『高麗時報』, which put the unique regionalism of ‘Gaesong’ and ‘modernity’ at the forefront, functioned as a literary magazine rather than its original role as a media or information magazine.

The 10 members who first published the issue were Geohwa Gong Jinhang(炬火 孔鎭恒), Cheongnong Kim Hakhyeong(靑儂 金鶴炯), Beomsacho Kim Jae-eun(凡斯超 金在殷), Poyeong Go Hanseung(抱永 高漢承), Haseong Lee Seongeun(霞城 李瑄根), Songeun Kim Yeongui(松隱 金永義), Ilbong Park Il-bong (一峯 朴一奉), Kingwi Kim Byeongha (金龜 金秉河), and Magong Ma Taeyeong (馬公 馬泰榮), Chunpa Park Jaecheong (春波 朴在淸), etc.

The ten publishers expanded the cultural base of Kaesong citizens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reviews on various cultural activities, promoted a sense of community, and facilitated interaction with newspaper readers. This may be one of the important values of 『高麗時報』.

Key words: Gaesong region, modern times, Japanese colony, publisher, Gongjin Port, Hak-hyeok Kim, Jae-eun Kim, Han-seung Ko, Seon-geun Lee, Young-eui Kim, Il-bong Park, Byeong-ha Kim, Tae-young Ma, Jae-cheong Park

투 고 일: 2024년 5월 29일

심 사 일: 2024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4일

수정마감일: 2024년 6월 25일